
브라질의 도시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해법

베아 비트거

前 RIAL¹⁾ 사무총장

원제와 출처: Bea Wittger, “La crisis urbana brasileña y sus soluciones ‘desde abajo’”,
Nueva Sociedad, No 273, enero-febrero de 2018, pp. 110–121.

핵심어: 배제, 파벨라, 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주거, 브라질

도시 위기에 대한 서론

UN이 내놓은 도시 발전에 대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무렵이면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²⁾ 라틴아메리카는 이미 인구의 80%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된 대륙이다.

1) Red de Investigación para América Latina: Etnicidad, Ciudadanía y Pertenencia

2) OUN, Departamento de Asuntos Económicos y Sociales, División Población: 《The World's Cities in 2016: Data Booklet》, ST/ESA/SER.A/392, 2016, p. ii.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도시들의 급속한 성장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음에도 그에 걸맞은 적절한 도시계획 정책은 없었다.³⁾ 브라질의 도시에서는 이러한 적절한 해결책의 부재가 일찍부터 파벨라⁴⁾ 및 여타 비공식 주거지 형태의 출현 및 팽창에서 가시화되었다. 재원이 부족한 사람들은 접근 가능한 주거의 결핍 및 공공재와 공적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을 겪어왔다. UN해비타트에 따르면, 오늘날 브라질은 5천만 명 이상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600~800만 개의 주택 부족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월 소득 1000달러 미만의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⁵⁾

브라질의 도시 위기는 현실이고, 2017년의 정치 상황은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듯하다. 2016년 지우마 호세피의 탄핵 이후 극단적 보수주의 부통령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테메르 정부는 집권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외에도 심각한 우경화를 드러낸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의 지휘 아래 정치 아젠다 초기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노선을 탐색했고, 이는 도시 정책 및 도시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도시 정책이라는 글로벌 역학에 따라, 역사적인 뿌리가 깊은 소외현상 및 도시 중심부나 변창하는 지역으로부터 저소득층이 이탈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또 강화된다. 주거 정책에 대한 초기 홍보물을 보면 주택 부족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 내 삶”(Minha Casa

3) ONU-Hábitat, *Estado de las ciudade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2. Rumbo a una nueva transición urbana*, ONU-Hábitat, Nairobi, 2012, p. xi, p. 19.

4) 필자는 Licia Valladares의 설명에 동의하여 ‘파벨라’라는 용어를 사회과학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지속적 사회 정체성’이 아니라 이종적이고 변형가능한 구조 형태로 이해한다. L. Valladares, “Social Science Perspective of Favelas in Rio de Janeiro: A Historical Perspective”, *Lanic Etext Collection*, 2006, pp. 1-31. <<http://lanic.utexas.edu/project/etext/llilas/vrp/valladares.pdf>>. 파벨라 및 파벨라 주민에 대한 참고문헌은 광범위하며, 종합적인 자료는 Janice E. Perlman, *The Myth of Marginality: Urban Poverty and Politics in Rio de Janeiro*,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76.

5) Habitat for Humanity, “Brazil, Country Profile”, <www.habitat.org/sites/default/files/Brazil_cp_June2017.pdf>, 2017.

Minha Vida)⁶⁾이라는 국가 주거프로젝트의 대폭적인 축소가 예견된다.

이러한 과정에 맞서 여러 NGO들과 사회운동, 시민사회가 결집하게 되었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의 연대 성명서에서 이들은 그 도시 정책이 가져올 결과들을 경고하고, 과거와 유사한 상황들을 상기시켰다. 브라질의 배타적 도시 정책과 실행들이 역사적 연속성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2016년부터 일련의 여타 개혁들-보건비와 교육비 감축, 아웃소싱, 노동 개혁, 사회 보장, MP 759법-은 브라질의 도시 비극이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 우리는 1980년대와 유사한 시나리오를 예견할 수 있다. 빈곤화, 폭력, 파벨라 증가, 가족 해체, 노숙자 증가, 여성 폭력의 증가, 신호등에서 구걸하는 빈곤어린이 문제 등.⁷⁾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 나름의 해결책과 배제 정책 기조에 맞설 대응책을 모색하고 발견해왔다.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이질적인 도시 공간은 늘 도시인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배경이자 테두리였다. 시민성에 대한 협의와 일상적 형성은 새로운 가능성과 여지를 열어줌으로써 참여와 저항, 변화의 다양한 주역들을 추동시킨다. 다른 여러

6) 이 기획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글을 참조할 것. Eduardo Marques y Leandro Rodrigues, "O programa Minha Casa Minha Vida na metrópole paulista, Atendimento habitacional e padrões de segregação", *Estudos Urbanos Regionais*, Vol. 15 No 2, 2013. Nabil G. Bonduki, "Do Projeto Moradia ao programa Minha Casa Minha Vida", *Teoria e Debate*, No 82, 2009.

7) #brcidades, "Por uma frente ampla em defesa da construção social de um projeto para as cidades do Brasil", 2017, p. 4, <www.brcidades.org/assineomanifesto>. V. tb., "Com governo Temer, moradia volta ser 'coisa pra quem tem dinheiro'", *Rede Brasil Atual*, 30/12/2016, <www.redebrasilatual.com.br/cidadania/2016/12/com-governo-temer-moradia-volta-ser-ativo-financeiro-887.html>.

중요한 참여방식들 중에서, 도시 사회운동이 조직되어 특정 도시민 계층이 도시적 혜택에서 배제되고 접근의 차별성이 일어나는 데 대해 투쟁하게 되었다. 도시 사회운동 참여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실천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도시권⁸⁾을 공적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많은 도시 거주민이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 평범한 가용 주택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이라는 열악한 생활 여건을 겪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글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도시 정책을 통해 도전하고 행동하는 도시 사회운동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리우데자네이루 사례에서 출발하되, 도심 타워빌딩 점령을 통해 적당한 거주 공간을 얻고자하는 주택 운동들과 그들의 투쟁에 초점을 두고 전개하겠다. 구체적인 점령 사례와 그 참가자들의 구술을 통해, 사회 저항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점령자들의 개인적 동기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들의 투쟁이 도시 정책 및 개인의 발전에 어떤 광범위한 효과를 갖는지 고찰하도록 하겠다.

도시 위기의 뿌리: 배제의 역사

특정 계층 주민들에게 도시적 혜택의 차별적 접근과 배제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도시 위기와 그 도전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년이 더 된 라틴아메리카 대도시의 출현기부터 시작하여 도시 역학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19세기 말 브라질 독립 이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갈수록 많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와 생활 여건을 찾겠다는 희망으로 리우데자네이루와 같이

8) 도시권(derecho a la ciudad)은 도시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옴킨이

팽창 중인 도시들로 이주했다.⁹⁾ 식민기에 시작된 도시의 사회적 양분은 점진적인 도시 변화 및 성장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다. 공장과 같은 노동 공간이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노동자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 경제적 제약이 있다 보니, 대체로 도심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코르치수’(cortiços)라고 불리는 과밀 집단주택에 살았다. 반면에 부유한 계층은 도시 남쪽, 특히 해안선을 따라 자리를 잡았다.¹⁰⁾ 그러나 리우데자네이루 도심에 위치한 코르치수들은 엘리트 계층에게 낯이 커다란 우려의 썩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비참한 위생 상태를 퇴치한다는 명분으로 이 코르치수들을 퇴치하고 주민들을 몰아냈다.¹¹⁾

이런 조치는 프란시스코 페헤이라 파수스(1902~1906) 시장 집권기에 최초의 도시 공공 개혁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었다. 그가 실시한 도시 재개발 개혁들은 토지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수천만 저소득 인구가 도심을 떠나야 했다. 이들 중의 대다수는 북쪽 변두리와 근교로 이주를 했고, 구릉지대에 자리를 잡아 새로운 형태의 서민 거주지, 파벨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¹²⁾ 부유한 계층의 주택과는 대조적으로, 파벨라의 집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 거주자들이 직접 지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집들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나

9) 산업화와 커피에 바탕을 둔 경제성장의 결과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는 그 당시 국내 이주의 가장 높은 수준을 겪어야 했다. Fausto Brito, “The Displacement of the Brazilian Population to the Metropolitan Areas”, *Estudos Avançados* vol. 20 No 57, 2006, p. 222.

10) Alvaro Ferreira, *A cidade no século XXI. Segregação e banalização do espaço, Consequência*, Rio de Janeiro, 2011, p. 44. Mauricio de Almeida Abreu, *Evolução urbana do Rio de Janeiro*, Instituto Pereira Passos, Rio de Janeiro, 2010, pp. 35–59.

11) *Ibid.*, p. 50. Helia Nacif Xavier y Fernanda Magalhães, “Urban Slums Report: The Case of Rio de Janeiro, Brazil”, *Case Studies for the Global Report on Human Settlements*, 2003, p. 10.

12) M. de Almeida Abreu, *ob. cit.*; Zeca Brandão, “Urban Planning in Rio de Janeiro: A Critical Review of the Urban Design Practice in the Twentieth Century”, *City & Time*, vol. 2 No 2, 2006, p. 37 y ss.

공공재가 결여되었다.¹³⁾

그 이후 몇 십 년 동안 도시 인구는 더욱 증가했고 1950~1970년에는 그 수치가 극에 달했다.¹⁴⁾ 생계에 필요한 경제 수단도 없이 도시로 유입된 사람들은 집을 갖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대체로 파벨라나 도시의 불법 거주촌에 정착하는 것이었다.¹⁵⁾ 여러 해 동안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시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상징적인 데 불과했다. 주택 부족 문제에는 아무런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부동산 투기의 증대로 인해 주거 위기는 더욱 악화되었다.¹⁶⁾ 1979년이 되어서야 도시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여러 해의 노력 끝에 1994년 ‘파벨라 촌(Favela-Bairro)’과 같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¹⁷⁾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 인구의 추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도시화 및 파벨라의 사회공간적 통합에 우선적인 포커스를 맞추었다.¹⁸⁾

그러나 1980년대 민주화 이후의 여러 변화와 주택 프로그램들에도 불구하고

13) Márcia Pereira Leite, “Pobreza y exclusión en las favelas de Río de Janeiro”, Alicia Ziccardi, *Procesos de urbanización de la pobreza y nuevas formas de exclusión social. Los retos de las políticas sociales de las ciudades latinoamericanas del siglo XXI*, Siglo del Hombre/ Clacso, Bogotá, 2008, p. 215; Nabil G. Bonduki, “Origens da habitação social no Brasil”, *Análise Social*, vol. XXXIX No 3, 1994, p. 729.

14) George Martine y Gordon McGranahan, “The Legacy of Inequality and Negligence in Brazil’s Unfinished Urban Transition: Lessons for other Developing Reg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vol. 5 No 1, 2013, p. 10.

15) Fernanda G. Correia, “Breve histórico da questão habitacional na cidade do Rio de Janeiro”, s/f, <www.achegas.net/numero/31/fernanda_correia_31.pdf>, p. 32.

16) M. de Almeida Abreu, ob. cit., pp. 95 y 116.

17) “파벨라 촌(Favela-Bairro)” 프로젝트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논의는 다음 서지를 참고할 것. Fernando Cavallieri, “Favela-Bairro, Integração de áreas informais no Rio de Janeiro”, Pedro Abramo(ed.), *A cidade da informalidade. O desafio das cidades latino-americanas*, Livraria Sette Letras/FAPERJ, Rio de Janeiro, 2003.

18) H. Nacif Xavier y F. Magalhães, ob. cit., p. 13 y ss.; M. de Almeida Abreu, ob. cit., p. 134 y ss.

하고, 신자유주의 정책들과 경제 위기로 인해 급여 감소, 실업 증가, 비공식 부문의 증가, 도시 공간 전반에 걸친 인프라 개발 및 건설의 부재 등의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 자체로 임대료 상승과 민간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은 주거 부족은 더욱 심화되었고, 파벨라와 비공식 거주촌의 숫자는 다시 증가했다.¹⁹⁾ 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최근의 통계들에 따르면 브라질에는 현재 비(非)거주 건물들의 숫자와 주택 부족 수치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위기에 대한 대답: 도시 주거를 위한 운동과 투쟁

도시가 주는 혜택들에 대해 일부 계층이 겪는 차별적 접근과 배제가 새로운 현상이 아니듯이 그런 현상에 대한 저항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 도시화가 시작될 무렵부터 이미 도시 정책의 배타적 특성에 맞선 저항이 있어 왔으며 이는 브라질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²¹⁾ 오늘날에는 이러한 저항이 주로 도시 사회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하게 하고 재원이 부족한 이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일을 모색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특히 1970년대에 파벨라와 도시 전역에 걸쳐 시민 연합 및 지역 주민단체와 같은 지역 차원의 기층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 운동의 목적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와 공공재를 놓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파벨라의 합법화 지지

19) M. Pereira Leite, ob. cit., p. 215; Charmain Levy, "Brazilian Urban Popular Movement: The 1997 Mobilization of the Inner-City Slum Movement in São Paulo",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No 85, 2010, p. 36.

20) Fundação João Pinheiro, Centro de Estatística e Informações, "Déficit habitacional municipal no Brasil", Fundação João Pinheiro, Centro de Estatística e Informações, Belo Horizonte, 2013, p. 73.

21) 예를 들어 20세기 초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 있었던 세입자들 쟁의와 운동이 그렇다.

및 추방 반대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²²⁾ 1980년대에는 이 단체들이 점진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전국 차원의 조직적인 거대 도시운동이 출현했다.²³⁾ 민중화 이행 이후에는 여타 시민사회 부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헌법 논쟁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도시 개혁에 대한 요구사항을 새 헌법에 포함시키려는 노력도 했다. 가장 중요한 성공 사례는 도시 정책에 관한 내용을 헌법 182조와 183조에 집어넣은 것으로, 무엇보다도 그 덕분에 도시의 사회적 기능이 헌법에 최초로 뿌리내릴 수 있게 되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투쟁은 지속되었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해 삶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자 도시 운동은 확장되었고 그 저항 형태는 급진화했다. 도시의 비어 있는 지역을 점령하여 소유권을 요구한다거나 시위를 벌인다거나 합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과 같은 기존에 있었던 전략도 사용했지만, 주거의 사회적 기능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비어 있는 건물들을 점령하기 시작했다.²⁵⁾ 이들의 저항과 조직화는 더욱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왔고, 2000년에는 마침내 1988년 헌법의 6조에 주거권이 포함되었다. 게다가 2001년에는 일명 ‘도시법 조례’(Estatuto de Ciudad)이라

22) Kathryn Hochstetler, “Democratizing Pressures from Below? Social Movements in New Brazilian Democracy”, trabajo presentado en el XX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Asociación de Estudios Latinoamericanos (LASA), 17–19 de abril de 1997, Guadalajara, disponible en <<http://lasa.international.pitt.edu/lasa97/hochstetler.pdf>>, p. 2 y s.; Regina B. Santos, *Movimentos sociais urbanos*, Editora unesp, San Pablo, 2004, p. 126.

23) Maria d. G.M. Gohn, *Movimentos sociais e lutas pela moradia*, Loyola, San Pablo, 1991, p. 12 y ss.; C. Levy, “The Housing Movement in the City of São Paulo: Crisis and Revival”, C. Levy, Michelle Duquette y Maurilio de Lima Galdino, *Collective Action and Radicalism in Brazil: Women: Urban Housing and Rural Movement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2005, p. 101 y ss., 108.

24) Leonardo Avritzer, “O Estatuto da Cidade e a democratização das políticas urbanas no Brasil”, *Revista Crítica de Ciências Sociais* No 91, 2010, pp. 205–209; Regina F. Cordeiro Fonseca Ferreira, “Constituição cidadã e o direito à cidade, 20 anos de luta e muitos desafios”, en *Proposta* No 117, 2008, p. 36 y ss.

25) Adauto L. Cardoso, “Vazios urbanos e função social da propriedade”, *Proposta*, No 116, 2008, p. 8; R.B. Santos, ob. cit.

불리는 10257법이 승인되었다. 이 법은 도시 정책에 관한 헌법 182조, 183조의 규칙을 정한 시행령이었다.²⁶⁾ 이 성과는 주거 쟁취 운동에 중요한 발자취였는데, ‘도시법 조례’이 무엇보다도 5년 간 사용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권 박탈이나 소유 재산에 대한 누진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빈 건물의 존재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²⁷⁾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도시 발전 초기부터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시민 투쟁과 지배적인 배제 정책이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주거권의 공식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이 권리가 체계적으로 존중받은 경우는 드물며, 정부도 이를 이행하거나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²⁸⁾ 그래서 주거 운동은 도심 지역에 비어있는 고층 건물들에 대한 점령을 통해 도시 개혁 달성을 위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내 ‘마노엘 콩구 점거’(Ocupación Manoel Congo)가 그 사례다.²⁹⁾

도시 변화에 참여하기: 참여와 그 효과

건물에 대한 점거는 용의주도한 사전 조직화와 계획이 필요한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다. 비어있는 건물을 고를 때도 신중해야 할 뿐 아니라—공공건물이 우선적이다—책임을 맡은 운동조직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들과의 사전 조정 모임들을 조직화하게 된다. ‘마노엘 콩구 점거’의 경우 선정된 건물을

26) 2001년 대통령령 10257.

27) 도시의 건물 보유세와 토지세를 말한다.

28) R.B. Santos, ob. cit.

29) 리우데자네이루의 주거 점거에 대해, 특히 시민권과 젠더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 서지를 참조할 것. B. Wittger, *Squatting in Rio de Janeiro: Constructing Citizenship and Gender from Below*, Transcript, Bielefeld, 2017.

점거하기 1년 전인 2007년 10월 28일 ‘전국주거투쟁운동’(MNLM: Movimento Nacional de Lucha por la Morada)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전국주거투쟁운동은 1990년에 창립되어 오늘날에는 브라질 15개 주에서 활동하고 있다.³⁰⁾ 운동의 주요 목표는 모든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도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사회적 이익이라는 정책의 정착을 목표로 삼았다. 이들은 도시의 주거 문제가 보건 및 교육 문제와 같은 여타 기초적인 부문들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이들 투쟁에 동참하기도 한다.³¹⁾

우리의 구상은 도시 혁신을 위한 투쟁이다. (...) 점거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존재하는 도시의 빈 공간을 고발하는 형식의 하나다. 부동산 투기를 고발하는 형식이자 공공정책 투쟁이다. 도시의 혁신은 보건, 교육, 교통, 건강한 식품 등의 공공정책과 유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다만 이 투쟁이 공존을 위한 도시 투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다.³²⁾

그렇게 해서 점거에 필요한 조직과 점거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차후 도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초대되었다. 점거의 정치적 선례들이나 점거운동의 내부적 구조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건물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작동하게 될 점거운동의 규범들과 의무 과제들도 이 단계에서 논의되고 조직되었다. 규범에는 점거 주택 안에서 싸움과 마약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관리위원회 형태로 건물 청소와 유지, 현관(즉 경비실) 통제 같은

30) 15개 주는 파라, 아크리, 마토 그로수 두술, 연방 수도, 상파울루, 에스피리투 상투, 미나스 제라이스, 페르남부쿠, 세르지피, 바이아, 토칸틴스, 리우데자네이루, 파라나, 파라이라, 리우그란지 두술이다. MNLM-RS: MNLM Rio Grande do Sul, 2007, <<http://mnlm-rs.blogspot.de/>>.

31) Ibid.

32) 2011년 ‘전국주거투쟁운동’의 전국 코디네이터의 말이다.

내용이 의무 과제에 담겼다. 점거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정기 모임에도 참석하는 것도 거주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였다. 정기 모임에서는 의사결정이 집단 형태로 이루어졌다. 의무 과제와 규범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처벌이 있었고, 나아가 해당 점거 책임자들의 논의를 통해 점거 주택으로부터 추방을 결정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의무 과제에 변경이 생기기도 하고 이행 빈도가 바뀌기도 했으며 중단되는 과제도 생겼다. 그러나 ‘마노엘 콩구 점거’의 내부 조직과 책임성 있는 운동의 영향력은 다른 점거들의 사례와 대조적으로 현재까지도 가장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 점거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 다시 말해 아래로부터 시민권을 구축하고 실천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전에는 바이샤다 플루미넨시(Baixada Fluminense)의 변두리³³⁾나 파벨라 같은 열악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에게 그 지역에 산다는 것은 부족한 인프라와 매일같이 씨름한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마약 유통, 준군사 집단, 경찰 등과 공생하는 불쾌한 생활도 견뎌야 한다는 의미기도 했다. 따라서 당연히 심각한 폭력에 연루되거나 그 영향에 노출될 위험에 처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거주자들의 다수는 혼자만의 거주 공간이 없어 가족이나 친척들과 함께 살아야 했는데, 이는 대부분 갈등과 문제를 초래하였다. 도심의 길거리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점거 참가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고, 생계비를 간신히 벌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다. 특히 임대료를 지불하는 게 가장 큰 부담이었다. 본고의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다수가 비공식 부문에서 일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일하는 중이었다. 그러므로 주택에 정착한다는 것은 2011년 마노엘

33) 바이샤다 플루미넨시에는 두케 지 카샤스(Duque de Caxias), 노바 이과수(Nova Iguaçu), 상조앙 지 메리치(São João de Meriti), nilópolis, 베포르드 호슈(Belford Roxo), 케이마두스(Queimados), 메스키타(Mesquita) 등의 군이 포함된다.

콩구의 한 주민이 표현한 대로 이들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개선한다는 의미였다.

여기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투쟁이 나의 것이자 여기 사는 마흔두 가족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 기쁘고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공간을 갖기 위해 싸웠고, 지금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사방으로 연결되는 버스도 있고요. 지하철이며 클럽, 영화관, 극장, 편의시설도 있지요. 다 걸어서 오갈 수 있는 곳이니깐요. 학교도 마찬가지로요. 저는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기 살기 시작한 때부터요. 인권 교육 코스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아주 좋았어요! 내 아들한테도 좋지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놓았더니 지금은 쓸 줄도 읽을 줄도 알아요.³⁴⁾

점거 주택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어떤 이들은 마노엘 콩구에 참여하기 이전에 다른 사회운동이나 토지 점거운동, 사회 봉사활동 등과 같은 시민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대체로 여성들이었는데 정치적 실천 활동에 참여한 지 이미 수년이 되었고, 그 경험과 지식을 점거 운동 조직화에 활용할 줄도 알았다.

결론적으로 보면, 거주민들의 삶의 상황과 과거의 활동들이 점거 행동에 가담하기로 한 이들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었다. 이들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적절한 주거, 교통 인프라, 위생과 교육의 보살핌으로부터 소외되었었다. 도시의 문화생활이나 공공 생활로부터 배제된 것은 물론이었다. 점거 건물, 그것도 도시 한복판에 있는 점거 건물에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받은 셈이었다. 그러니 참여를 결정한

34) 2011년 마노엘 콩구 점령지의 주민 인터뷰

주된 이유는 개인적 필요성이었던 것이다. 정치적인 동기를 이유로 꼽은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는데, 마노엘 콩구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시민활동을 하던 사람들의 경우였다. 그러나 점거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치의식이나 이후 그들의 발전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사실 처음에는 대다수가 점거를 통해 뭘 기대할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점거 주택으로 이주하고 난 뒤에 깨달은 변화와 결과가 있는지 질문 받자, 점거 시점부터 시작된, 즉 점거 주택에 살게 되면서 경험한 개인적 발전을 계속 언급하였다. 이들은 건물 점거의 참여 및 점거의 성공적인 경험 덕분에 얻게 된 새로운 자신감을 말하곤 했다. 스스로 더 강해지고 더 믿음직해졌다고 느끼며,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의 삶을 바꿀 능력과 희망이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이는 점거 주택의 집단생활이라는 상황에서 새로운 생활 규범과 여건이 주어지자 더욱 촉진된 듯했다. 새로운 규범과 환경은 타인의 욕구에 대한 교육과 관용을 통해 유의미한 개인적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고, 점거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의 여론이나 편견을 무시할 수 있게도 해준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발전이 새로운 정치의식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었다. 사회운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일상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이나 시민 활동에 가담하고 참여하는 의무감이 변화의 힘이 되고 정치의식 개발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잠재력이라는 점을 이들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마노엘 콩구 점거 운동은 도시 위기에 맞서 일어난 오늘날의 대중적 저항의 예시다. 리우데자네이루 시의 심장부에서 살아남은 이 거주민들의 성공은, 모든 정치적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활성화될 때 도시 운동이 도시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위로부터의’ 지배적 배제 정책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균형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도시 운동은 수십 년간 도시 정책의 형태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도시의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특히 주거권을 헌법에 포함시킨 사례가 더욱 그러하다. 도시 운동의 지속적인 저항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광범위한 결과와 효과를 낳은 것이 아니다. 도시 운동의 이니셔티브 덕분에 이전에 한 번도 정치 저항에 가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도시 변화와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러한 도시 운동 활동가들과 그들의 행동은 현 신자유주의 정책의 배경과 및 그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들의 시도가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성공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다지 유의미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은 중요한 응집력이고, 배제의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고발이며, 따라서 사회 변화가 가능함을 증명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조영실 옮김